

2025 02

통권 298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정리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포지사진: 이재만 비오
(함창 본당, 가톨릭농민회 회원)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 28. 20)

성경 말씀은 점촌동 본당의 문영애 세라피나님의 글씨입니다. 자매님은 1989년에 처음 수화를 배운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촌동 본당 수화 미사를 비롯하여 농아자들을 위한 통역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4주 동안 2시간씩 배운 수화가 전부였기에 부족했지만, 농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나 달려갔습니다. 농아자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벌써 34년입니다. 세라피나님은 하느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꾸준함으로 오늘도 농아자들과 함께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반모임 길잡이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저항과 혼란

6.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관찰을 축소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구가 냉각기와 온난기를 언제나 겪어 왔고 언제나 겪을 것이라는 사실과 같은, 확실하다고 추정된 과학적인 자료들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자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확인하는 데에 수백수천 년이 아니라 그저 한 세대면 충분할 정도의 속도로 온난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 안에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는 현상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7.

세계 온난화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을 비웃으며 극심한 추위도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추위와 다른 이상 징후들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는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곧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한 세계적인 불균형이라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고, 호수가 마르며, 해일이나 범람으로 사람들이 휩쓸려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집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세계적인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를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사건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요인들로 설명됩니다.

“안동 감목대리구 시절과 발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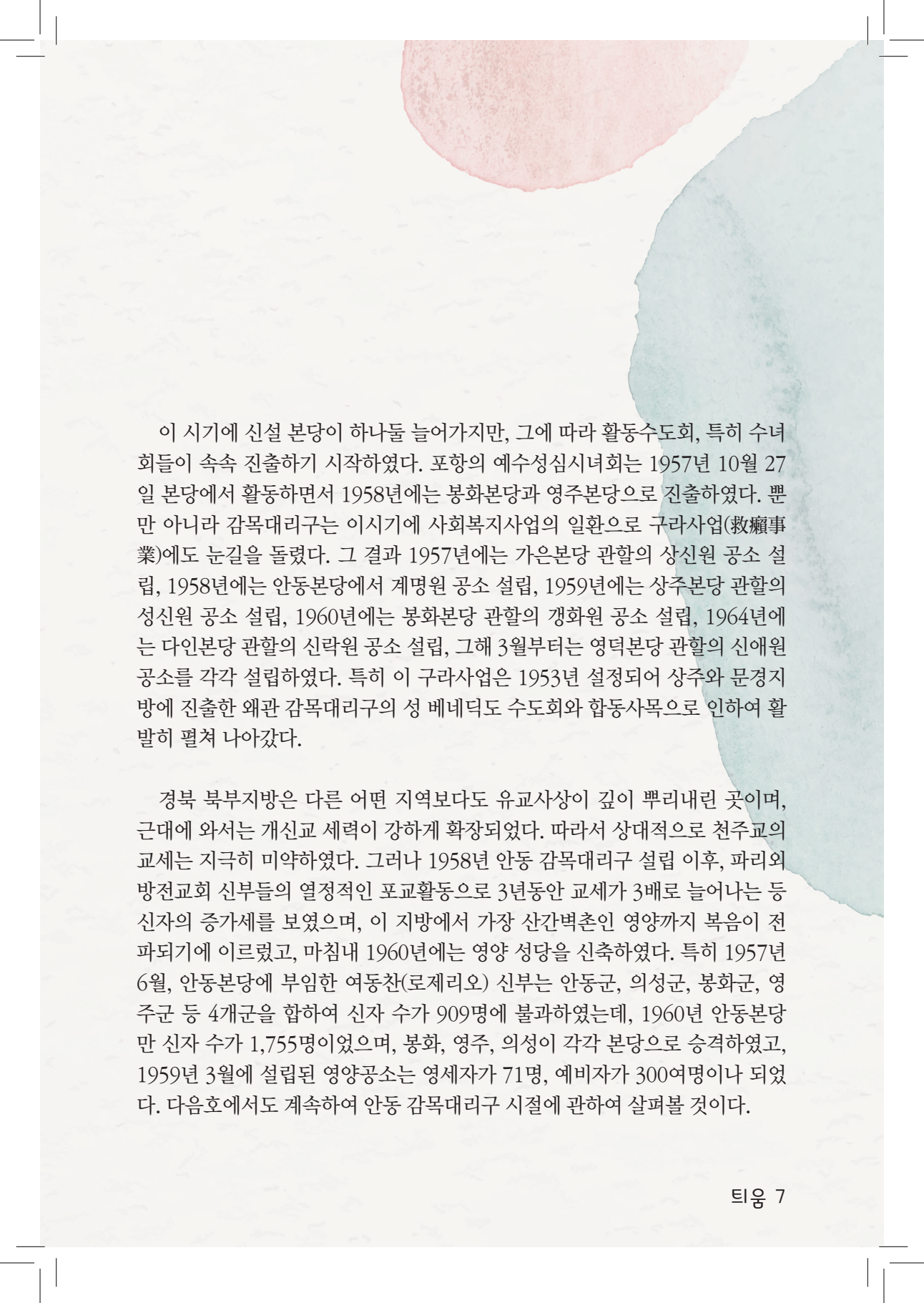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58년 6월 2일, 안동감목대리구는 파리외방전교회 하(河, 할레르)신부가 감목대리로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발되었다. 그해 5월 10일, 할레르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로 경북 북부 지방교회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당시 포항 죽전본당 보좌신부였던 노광명(로제리오)신부는 예천본당 주임으로, 하양본당 보좌였던 이성춘(모리스창)신부는 봉화본당 주임으로, 여동찬(로제리오) 신부는 안동본당 주임으로, 배세영(마르첼리노)신부는 영덕본당으로, 안덕화(베드로)는 포항본당 주임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1962년 2월에 제2대 감목대리로 임명된 구인덕(첼레스티노) 신부의 보고서에 드러난 당시 교회 안팎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962년도에 10명 정도 되는 그들은 프랑스의 여러 지방 출신의 신부들이다. 그 젊은 나이의 신부로서(평균연령 32세)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과 한국형제들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다.

이 갈라진 땅에 센 바람처럼 불고 있는 성신(聖神)의 도움으로 많은 예비자들이 선교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나 크고 어두운 그늘이 있다. 특히 안동과 영주인데, 그 지방은 개신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면마다 예배당이 여럿이 있다. 안동 시내에는 천주교 성당이 하나밖에 없지만, 예배당은 17개나 된다. 그래도 앞일에 있어서 튼튼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만들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미신들의 종교적인 약함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서 갈라진 400년의 개신교보다 2000년의 천주교를 좋아한다. 또 알게 된 것은 한국역사의 애국심과 불교, 유교의 효도로 공산주의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은 새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시기에 신설 본당이 하나둘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 활동수도회, 특히 수녀회들이 속속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포항의 예수성심수녀회는 1957년 10월 27일 본당에서 활동하면서 1958년에는 봉화본당과 영주본당으로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목대리구는 이시기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라사업(救癩事業)에도 눈길을 돌렸다. 그 결과 1957년에는 가은본당 관할의 상신원 공소 설립, 1958년에는 안동본당에서 계명원 공소 설립, 1959년에는 상주본당 관할의 성신원 공소 설립, 1960년에는 봉화본당 관할의 갯화원 공소 설립, 1964년에는 다인본당 관할의 신락원 공소 설립, 그해 3월부터는 영덕본당 관할의 신애원 공소를 각각 설립하였다. 특히 이 구라사업은 1953년 설정되어 상주와 문경지방에 진출한 왜관 감목대리구의 성 베네딕도 수도회와 합동사목으로 인하여 활발히 펼쳐 나아갔다.

경북 북부지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교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곳이며, 근대에 와서는 개신교 세력이 강하게 확장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천주교의 교세는 지극히 미약하였다. 그러나 1958년 안동 감목대리구 설립 이후, 파리의 방전교회 신부들의 열정적인 포교활동으로 3년동안 교세가 3배로 늘어나는 등 신자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지방에서 가장 산간벽촌인 영양까지 복음이 전파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60년에는 영양 성당을 신축하였다. 특히 1957년 6월, 안동본당에 부임한 여동찬(로제리오) 신부는 안동군, 의성군, 봉화군, 영주군 등 4개군을 합하여 신자 수가 909명에 불과하였는데, 1960년 안동본당만 신자 수가 1,755명이었으며, 봉화, 영주, 의성이 각각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1959년 3월에 설립된 영양공소는 영세자가 71명, 예비자가 300여명이나 되었다. 다음호에서도 계속하여 안동 감목대리구 시절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천주교 안동교구 청년연합회 회장
용상동 본당 신민정 켜마

찬미 예수님!

용상동 성당 청년회장 신민정 켜마입니다. 저희 본당 청년회는 2019년 12월 창단되었습니다. 청년회가 없던 시기에 미사에 오가는 청년들을 구슬려 1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청년회’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청년회가 창단되고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회장의 임무가 막중하여 고민이 늘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성령의 이끄심에 맡겨드리자!’

그 후, 신부님과 본당의 요청으로 크고 작은 활동의 기회가 있을 때면 열심히 임했으며, 어느새 단독방의 인원은 2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청년회의 모든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겨우 회원들이 모임을 시작하고, 얼굴을 익혀가고, 소통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청년회원들의 친교와 일치를 위해 음악 피정을 준비하던 시기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단하자마자 맞이한 위기, 무엇이라도 시도해보기 위해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였지만, 현실은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청년회를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 그 당시 본당 신부님께 면담을 요청했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켜마야,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냥 해 보자!”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시점에 적은 인원이라도 수녀님과 함께 교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교리 활동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이라는 상황은 지속적인 모임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위해 고민하던 중, 신부님의 요청으로 토요일 저녁에 거행되는 주일미사 전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와 번갈아 가며 전례 봉사와 미사 반주를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교구 청년회 회장단을 맡으면서 본당 청년들이 교구 행사, 지구 행사에 참여를 하며 다른 본당 청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1년 본당 송년미사 때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밴드 반주와 노래를 통해 본당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본당 청년들이 영덕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오며 더 뜻깊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사실 요즘도 본당 회장단들이 청년회의 정착을 위해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느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하기 위해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미 하느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 ‘청년회의 시작’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 본당 청년회가 더 발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단련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교회 내 모든 청년들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편작의 육불치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편작은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발해군(현 하북성과 산둥성) 출신으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이었다. 제나라 환공도 자신의 병세를 살펴보고 하였지만 편작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대로 듣지 않아 결국 병으로 죽게 된다. 편작은 제 환공을 만났을 때 그가 작은 병을 앓고 있음을 알았다. 편작은 즉각 약을 처방하여 먹으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공은 이 말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았다. 편작이 다시 두 번째 보았을 때 지금이라도 약을 쓰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환공은 말을 듣지 않았다. 세 번째 만났을 때 편작은 제 환공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안다. 환공이 자신의 몸에 생긴 병이 예사가 아닌 것을 알고서 편작을 뒤늦게 찾지만 그는 이미 제나라를 떠난 뒤였다. 편작에 대하여 기록한 사마천은 편작열전에서 환자가 병의 기미를 미리 알아 능히 어진 의사로 하여 재빨리 치료 받으면 병이 나아 몸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병이 많음을 근심하고 의사는 치료 방법이 적음을 근심한다면서 아무리 편작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이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여섯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환자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환자다.

내 병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주관적인 판단만 중요시하고, 정확한 의사의 진료와 충고를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둘째,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
몸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돈과 명예를 중시하여 몸을 가벼이 부린다면 이것 또한 불치병이다.

셋째,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옷은 추위를 견딜 정도면 적당하고, 음식은 배고픔을 채울 만 하면 적당한 것인데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고 편안한 것만 쫓는 환자는 어떤 명의라도 고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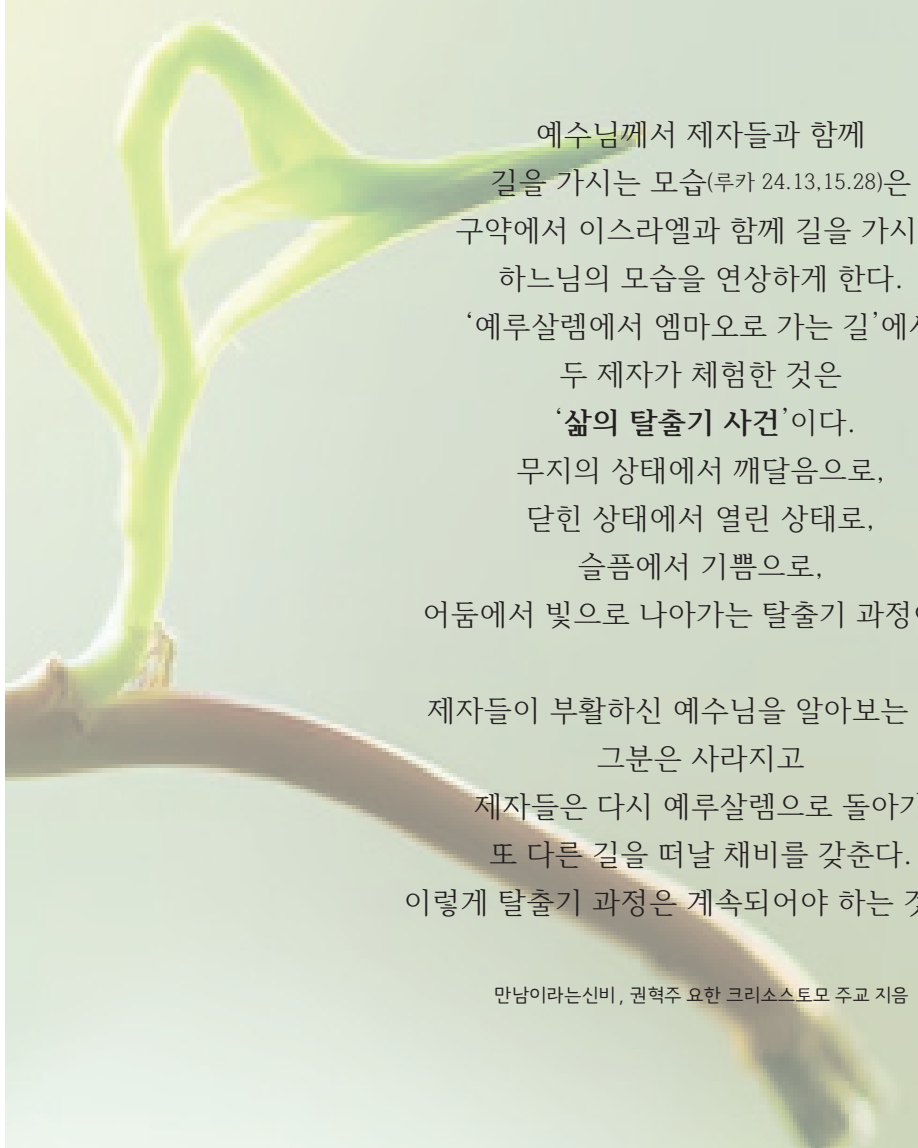
넷째,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음양이 장기를 장악하여 혈액의 소통이 단절되면 기가 불안정해져서 돌이킬 수 없다.

다섯째,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약을 먹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다.
어떤 명약을 쓰더라도 그 약을 받아들일만한 기본 체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고치기 힘든 병이다.

여섯째,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다.
요즘 같이 잡다한 의학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고 했고 특히 병에 관한 것은 전문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모습(루카 24.13,15.28)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가시던
하느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체험한 것은

‘삶의 탈출기 사건’이다.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탈출기 과정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분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또 다른 길을 떠날 채비를 갖춘다.
이렇게 탈출기 과정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남이라는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문경 본당 정리공소

Q : 정리공소를 소개해 주세요.

어르신 1 : 저희 정리공소는 63년도 외국 신부님이 계실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리 2리에 신자들이 많아서 이 건물을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고 나서도 손이 많이 가서 비도 새고 해서 고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 내외분이 공소가 지금처럼 유지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발목을 다칠까 봐 직접 계단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죠.

어르신 2 : 문경 본당에 공소가 네 개인데 그 중에서도 신자 수도 적고 모든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공소가 저희 공소인데 본당 신부님께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힘도 많이 실어 주십니다. 공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본당이나 다른 많은 신자들이 우리 공소를 위해 애쓰시고 도와주시니까 그제 늘 고맙습니다.

어르신 3 : 아주 오래전 제가 이곳으로 시집왔을 때 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신자였기에 저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짓는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농사짓는다고 본당에 갈 시간도 없었는데 가까이에 그나마 공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공소가 신자 수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소입니다. 우리 공소를 없애고 본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공소에 저 혼자 남거나 둘만 있어도 공소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르신 4 : 저희 공소는 전에는 신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즈음 와서 신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신자 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 수가 급속도로 줄었죠. 나이 많은 분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해서 적었을 때는 신자가 세 사람이 남은 적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소가 없어질 뻔도 했



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공소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5 : 저는 대구 죽전 성당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당에서 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2002년에 세례는 받았는데 젊은 사람 신자가 생겼다고 성당에서 많은 일을 시켜 하다 보니 힘들어서 지금은 냉담 중입니다.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시다만 객지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성당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나 아이들도 다 돌아오리라고 믿습시다.

정리공소는 문경과 가은의 중간 지점이다. 권영철 베드로가 함창에서 세례를 받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신현공소를 다녔다. 열심히 전교하던 중 부친이 작고하였고 이때 가은 본당 지인수 에르네스트 신부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 더욱 열심히 전교하여 신현공소에서 분가하여 1963년에 공소를 설립하고 자신의 집에서 공소예절과 미사를 드렸다. 1967년 대지를 구입, 건축을 시작하여 1968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10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찬미받으소서 131항-140항

- 131항**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이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
해야 할 ()”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하시면서도
- 132항** 오늘날 물질세계의 잠재력을 착취하려는 생명 공학을 통한
()이 포함됩니다.
- 133항** 유전자 변형 곡물의 과학적 개발은 식물 게놈 ()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 134항** 여러 나라에서 곡물 생산과 그 재배에 필요한 여러 상품들의 생산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135항** 현재와 미래의 공동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136항** 기술이 위대한 윤리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행위를
()하게 됩니다.
- 137항**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을 제안합니다.
- 138항** ()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원자나 소립자조차도 따로
떼어 놓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 139항** 우리는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 140항** 우리는 생태계가 이산화탄소의 분해, 물의 (), 질병과
전염병의 통제, 토양의 형성, 배설물의 분해 등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하여 선정된 분들에게 보내드린 간식을 맛있게 즐깁니다.

정답은 2월 28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7383-3114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형	민	출	간	공	과	간	시
이	변	기	죽	찰	성	촌	작
장	성	주	독	난	만	조	문
의	마	점	찰	동	자	애	석
의	리	위	공	전	깐	손	정
논	기	타	유	노	천	씨	편
함	고	승	의	명	소	간	인
화	당	정	학	상	교	정	화

12월 당첨자

김창희 나탈리아 (하망동 본당)

김경순 프란치스카 (휴천동 본당)

류동찬 바오로 (송현동 본당)

이재호 안드레아 (정상동 본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17 -생명의 밥상 차리기 2-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의 참 일꾼인 농민과 우주만물에 존 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나누면서 생산한 열매가 바로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이라야 ‘생명이신 하느님’을 부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쌀이 지금 천시를 당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무역기구(WTO)를 내세워 전세계의 식량을 무기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쌀 감산과 농업축소 방향으로 가면서 농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구가열화로 인해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부 고위 관리는 “이제 식량안보 운운하며 사기 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다니고 있고, 어느 재벌 회장은 “농지에 공장을 지어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쌀을 사 먹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먹거리인 쌀을 일회용 공산품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 식량의 무기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곡물 자급률은 캐나다 192%, 미국 120%, 중국 91%, 일본도 2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3%에 불과합니다(202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식량안보가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매년 쌀은 남아돌아 창고에 쌓여있지만 밀, 옥수수, 대두, 보리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 옥수수는 1.1%, 콩은 0.7% 밖에 되지 않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발표). 그래서 1년에

식량으로 소비되는 곡물의 90% 이상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 사료용은 100%입니다.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5%만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카길 등 거대 곡물 다국적 기업이 세계곡물 유통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무기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배후주 동 세력에는 미국의 곡물 기업 카길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카길등 3개 다국적 기업(ADM, 봉계, 콘아그라)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농식품의 독점 일원화를 통해 세계 농식품 시장을 석권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 곡물 유통(보관, 저장, 수송, 가공)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카길이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쥬스, 시리얼, 음료 농축액 등 음식료 부분의 독점화에서 종자,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 생산 자재 산업의 독점화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자급률의 실현은 국가의 안보가 달린 필수적인 일입니다.

2. 종자의 무기화

옛말에 ‘농민은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農夫餓死 枕厥種子).’고 했습니다. 그만큼 농민에게 종자는 목숨보다 중요해서 1년 농사가 끝나면 농민은 이듬해 파종할 종자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챙길 종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입니다. 무·배추 종자권 절반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의 매운맛’ 청양고추도 한때는 미국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 배추, 고추 등 토종 채소 종자 시장의 50%는 외국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기업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파, 당근, 토마토의 종자는 80% 이상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종자 권리를 갖고 있던 업체들이 해외에 팔린 탓에 우리 농산물의 약 70%는 외국 씨앗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고, 식재료 70%가 외국산 종자로 재배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개합니다.-천주교 안동교구 역사관

옛 수봉 공소 용기 촛대
(연대미상, 세로 16.2cm * 지름 4cm)



현재 화령본당 소속의 수봉 지역에는 병인박해(1866년) 이전부터 형성된 신자촌이 있었다. 충북과 경상도의 경계 깊은 산골에 웅기를 구우며 살았는데 그 웅기 가마가 수봉1리 꽃밭머리와 수봉2리 오도마을(오도재)에 2003년까지 있었으나 폐쇄되었다.

경상도 지방을 순방하던 김보록 신부는 1884년 당시 수봉공소에 12명의 신자와 300명 가량의 냉담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수봉공소에서 사용하던 이 웅기촛대는 당시 신자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전하는 귀한 유물이다.

소박한 이 촛대는 1991년까지 화령본당에 계셨던 김옥태 신부님께서 보관하시다가 전해주신 것이다. 촛대에는 그때 신자들의 굳은 신심과 정성을 담은 기도와 함께한 촛농이 그대로 흘러내려 있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태오 6,10)

이재민 비오
가톨릭농민회 솔티 분회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창 솔티 농장의 분회원 이재민 비오입니다. 경축 순환 농법으로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사, 하느님의 축복

저는 25년 전 고향인 이곳 상주시 함창으로 귀향했습니다. 농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왔으니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는데, 이웃의 권유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농사를 가르쳐주신 분이 친환경 농사를 하셨기에 저도 처음부터 친환경 봉사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이 방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성당 가실 때마다 장남인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2005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저의 모든 삶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아닐 때는 수확량이 많은 일반농법으로 이득을 올리고 싶은 생각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니 하느님의 순리에 맞는, 즉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고, 또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농부 자신이 좋은 농산물 먹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친환경 농법

유기농 농사는 잡초 제거가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오랫동안 농사지으면서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직 작물을 심지 않은 밭에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땅을 갈아엎어서 풀을 잡고, 이후에 몇 번 더 해주면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풀이 잘 자라는 논둑이나 밭둑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풀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제초제 쓰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경축 순환 농법

경축 순환 농법이란 소를 키우면서 나오는 우분(쇠똥)을 발효시킨 후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하고, 다시 수확을 마친 농작물의 부산물, 예를 들면 콩깍지, 옥수수대, 고구마 줄기, 버섯배지 등을 소의 먹이로 활용하는 농법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화학 비료 없이도 자연 퇴비를 이용하여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 사료 값등 불안정하게 바뀌는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년 초에 소비자가격이 책정되면 시중의 일반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클때에도 저희는 정해진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솔티 분회, 솔티 농장

솔티 분회는 상주 함창지역에 있는 가톨릭 농민회 분회로 198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가구로 시작했었는데 현재는 4가구가 함께 분업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계로 퇴비 만드는 분, 인력 관리, 판매관리 등 분야별 전문화가 되어 각기 맡은 분야를 품앗이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작물은 콩, 양파, 감자, 마늘, 벼 등입니다.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 잘 되던 작물이 안되기에 어려움이 많지요. 특히 생강은 예전에는 작황이 좋았는데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솔티 농장에서는 콩나물과 두부, 깐마늘, 연근차 등을 생산·가공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기에 유명하지요. 콩나물은 위쪽에서 물을 주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물을 주는 방식으로 키웁니다. 솔티 두부는 저희만의 특별한 간수를 사용하는데, 맛도 영양도 좋은 두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마태오 6:10)”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분쟁이나 욕심 없이 조화롭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몽포르 드 라수스 생제니에스 지음 | 안영주 옮김 | 176쪽 | 10,000원



“나는 네가
내 앞에서 걷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너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다.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너를 부른다.”

2025년 희년
평화의 길을 걷는
희망의 순례자들을 위한
사순 시기 묵상.
말씀과 기도, 시편과 전례로
마음을 다지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사제의 단상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서동호 베드로 신부
주교좌 목성동 본당 보좌

+ 찬미 예수님.

서동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2025년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합니다. 저 역시 사제로 서품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채우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 동안 과연 열심히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문득 성탄 이후에 치워진 동방 박사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기 다른 보물을 들고 힘겹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세 박사.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 1년을 걸어온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합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떠난 세 명의 박사. 별빛 하나만을 의지한 채 몇 개월이고 정처 없이 걸었을 그들입니다. 단지 예언에 기록된 몇 줄의 말만 믿고, 반짝이는 하늘의 별 하나만을 바라보며 지친 다리를 이끌고 몇 날, 며칠, 몇 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긴 여정. 도대체 무엇이 동방 박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분명 지금 당장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이내 곧 만나게 될 세상의 구세주를 떠올리며 희망 속에 다시 일어나 걸었을 것입니다. 이따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한 번 그 희망을 바라보며 무거운 발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발자국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사제로서 걸었던 초행길은 너무나 낯설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해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에 젖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별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동방 박사들처럼 저도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망이고, 조금 늦더라도 멈추지 않고 걷게 만드는 것도 희망입니다. 비록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차디찬 마구간,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희망으로 걸었던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에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의 구세주였지만,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저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걸었던 나날이었기에,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는 희망의 희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기쁜 한 해를 희망 속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수개월에 걸쳐 걸었던 동방 박사들의 희망찬 순례 여정처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심민성 디오니시오
군복무, 모전동 본당

저는 이 글을 2024년 12월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직 거리에는 캐럴이 들리고 성탄 분위기의 조형물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덕분에 성탄 분위기가 물씬 넘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과 저는 2개월의 '정서적 간극'이 존재하겠군요.

12월, 일상의 공허함과 조급함 사이에서 불쑥 들어오는 성탄의 들뜬 감흥들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받아들입니다.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마무리 지은 일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듯 기억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러한 무의미함이 쌓여 12월이 되었고, 끝내 지우지 못한 한 해의 아쉬움과 고단함의 흔적은 12월의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 해를 산다는 것, 새해에 다졌던 새 마음들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일이며, 막연한 희망 속에 안주하며 일상의 가련함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12월의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은 말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삶이 위의 말대로 영위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암담한 생각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다시금 한 해를 산다는 것을 떠올려 하자, 때마침 제일 좋아하는 곡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Keshi의 'Limbo'라는 곡입니다.

Keshi는 불확실한 감정 상태를 묘사하며, 감정적인 혼란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한 인간, 'Limbo'라는 제목처럼, 현재의 상태가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 감정의 복잡함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빈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이어지는

코러스에서는 감정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때의 감정은 갈망과 희망의 상반된 조화로, 불확실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2절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갈등을 자아와의 대화처럼 풀어내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도 여전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Limbo’라는 상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굴레처럼 다가옵니다. 곡의 마지막 코러스에서는 감정이 고요하게 마무리됩니다. 처음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적인 감정들이 점차 차분하고 담담한 톤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끝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굴레 안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고 고유한 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늘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해주는 일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늘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흘러가는 방향 그대로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를 앞둔 지금 찾아야 늦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견뎌야 하는 근심이 일상의 가련함과 조금함뿐이라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압도할 근심은 역설적으로 없는 셈이니까요. 곡의 마지막에서 노래하듯 저 역시 이 여정의 길 위에서 “꺾이지 않길 기도”하며 여러분의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예비신학생 모임 종강미사

12월 15일(주일) 오후 3시 교구청에서 주교님 주례로 '2024년 예비신학생 모임 종강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17명의 예비신학생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만의 '상본' 만들기 체험을 하였고, 예비신학생 부모님들은 성소담당 신부님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소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 림

알 림

1.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 2월 15일(토) - 16일(주일)

장 소 : 농은수련원

2.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일 시 : 2월 28일(금) / 3월 1일(토)

장 소 : 대구 신학교 남산동 대성당

대 상 : 시종직 -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최영식 아우구스티노(휴천동 본당)

신입생 - 이상헌 베드로(태화동 본당)

*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세요.

3.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4.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4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합	창	1,710,000	김혜경	10,000	최경희	20,000	신미란	20,000
가 은	662,000	화	령	3,715,846	박승철	10,000	최영옥	10,000	양수모	20,000
갈전마티아	4,000,000	후	포	453,000	박종대	10,000	탁인자	30,000	이길선	1,020,000
강 구	3,152,000				반영순	100,000	황두영	100,000	이영섭	40,000
개 운 동	2,788,000	교구 내 기타			배윤근	100,000	황상호	30,000	정순진	20,000
계 림 동	890,000	김정현	신부	10,000	변진희	10,000			정옥남	20,000
공 검	1,382,053	백동수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월 모임 편		정지혜	10,000
다 인	511,000	서동호	신부	20,000	송은옥	10,000	강면식	20,000	최경수	300,000
도평공소	1,098,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김명숙	240,000	현희성	20,000
모 전 동	895,000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설영숙	10,000	황재혜	310,000
목 성 동	8,563,597	정철환	신부	10,000	안금혜	50,000	심재임	20,000		
문 경	3,706,942	박보라		10,000	안명숙	20,000	이순연	40,000	성바오로말수도회	
서 문 동	11,814,000	박정렬		10,000	안안택	10,000	정은순	30,000		150,000
송 현 동	9,689,897	서영림		10,000	위은숙	10,000	정정숙	20,000		
신 기 동	1,512,000	신동섭		20,000	유병현	10,000	최금주	50,000	성 분 도 치 과	
안 계	398,000	이가엘		10,000	유영자	24,000	호원순	100,000		100,000
영 덕	3,551,000				이귀호	10,000				
영 양	3,085,000	타교구 개인			이명렬	50,000	이길선 편		안 동 신 협	
영 해	700,000	강윤순		5,000	이연희	100,000	강명희	10,000		100,000
옥 산	2,007,000	권양일		10,000	이임영	50,000	권기섭	20,000		
와룡공소	360,000	김건화		10,000	이정숙	20,000	권순옥	20,000	은총의 거울 Pr	
용 상 동	9,200,000	김경란		20,000	이정아	20,000	김중향	10,000		25,000
울 진	7,913,776	김경림		10,000	이호숙	10,000	김지은	10,000		
은척공소	857,000	김경수		50,000	장희익	40,000	나양수	60,000	정의의 거울 Pr	
의 성	4,302,000	김규영		100,000	정경자	20,000	박노정	20,000		20,000
점 촌 동	5,442,000	김근희		5,000	정국대	60,000	박영신	40,000		
정 상 동	2,416,099	김길자		50,000	정윤경	120,000	백형숙	20,000	향 주 삼 덕 회	
진 보	1,060,000	김영화		100,000	정재식	50,000	변우경	10,000		20,000
청 송	765,000	김은경		20,000	정태진	20,000	빈재휘	500,000		
태 화 동	6,553,453	김정은		10,000	조기섭	10,000	손정순	100,000		
풍양농촌선교	500,000	김현정		20,000	조원준	10,000	송 경	2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어떤

주님, 그
곳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를 때도 당신 사랑에 기대어 새물을 다가가서 내 마음을 향해
꼭같이 나설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제 마음을,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실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실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어느 날 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나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너무 행복해지려니와 그 마음은 풀기 위해 서둘러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주님, 저를
오르도록
찾아내 주십시오.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실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실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주실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